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운영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14개 거점고·45개 과목... 3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북도내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를 운영한다.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소수 선택 또는 교원 수급, 교실 등 물리적 공간 등의 한계로 개별학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특정학교에서 개설해 본고 및 인근 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5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교육과정은 14개 거점고등학교에서 45개 과목을 개설하여 3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참여 학생은 730명이다.

지역별로 거점학교를 살펴보면 전주 6개교, 익산 1개교, 정읍 4개교, 남원 1개교, 장수 1개교, 순창 1개교이다.

주요 개설 과목을 살펴보면 과학실험, 논술, 국제정치, 과제연구, 공연실습, 애니메이션, 영화 콘텐츠, 중국어 회화, 음악전공실기, 미술전공실기, 체육전공실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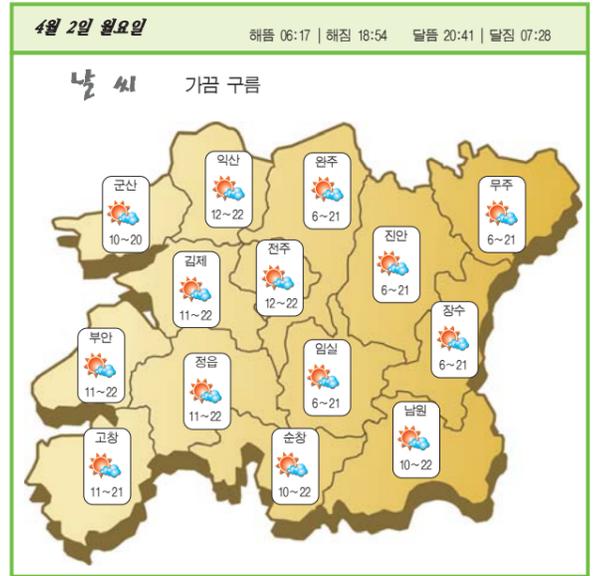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는 일반

고 학생 중 예술·체육 및 기초직업 분야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8년 현재 전주기전대학(3개과정), 전주비전대학(6개과정), 원광보건대학(2개과정), 군장대학(2개과정)에서 297명의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12회 48시간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 반려견관리,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재난안전과 현장응급처치, 태권도, 드론공간영상, 요리사, 파티쉐 등 13개 과정이다.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및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 강좌는 2022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프로그램이다. 자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하여 인근학교나 주변 대학을 활용해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권과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삼민 기자



덕진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실시

전주시 덕진구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지난 30일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5명을 비롯한 10명은 종합경기장과 주변 주차장을 방문해 주차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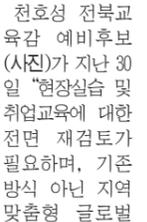
정경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저출산 인식개선 협약 지난 30일 고창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구지킴이, 저출산 인식개선' 업무협약을 새마을운동본부 고창군지회, 고창군외용소방대연합회, 고창군애환청년회, 고창청년회의소, 고창군4대연합, 고창군기독교연합회, 고창군일일여성회 등과 체결한 후 박우정 군수와 각 단체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호성 “현장실습·취업교육 전면 수정을”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변화해야”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가 지난 30일 “현장실습 및 취업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방식 아닌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 “현재 정부의 고교생 취업대책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양적 성장 위주의 대책이다”면서 “이 때문에 현장실습생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등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당국 및 관할 교육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고교졸업 전 현장실습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할 뿐 전북학생을 고려한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고용상태 점검 및 보완방안을 위한 전문 TF위원회 신설 운영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고졸 취업정책을 ‘지역맞춤형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학·관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향토기업가 성공프로그램 신설 △특성화 고교 간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발굴 및 지원 확대 △현장 중심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고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삼민 기자

유소년용 드론축구 제작발표회

6일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막 이벤트

전주시가 값도 싸고 다루기 쉬운 유소년용 드론축구 용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동문 E구역)에서 진행되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막 이벤트로 ‘유소년용 드론축구 제작발표회’가 진행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제작발표회는 전주시와 (사)캠텍종합기술원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작한 소형 드론축구공이 선보일 예정이다.

소형 드론축구공은 현재 50~60만원 대의 가격에 지름 40cm, 무게 1kg인 드론축구공을 10여만 원 대의 가격으로 낮추고 지름은 절반인 20cm,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 기존보다 10배 가벼운 100g 정도의 규격으로 소형화했다. 또 비행시간도 기존의 3분에서 6분으로 2배 이상 늘림으로써 가격 대비 성능을 향상시켰다.

한편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는 도와 전주시 신성장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 종합 박람회로 전시와 컨퍼런스, 경진대회, 각종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취업 향해 나간다! 뚝뚝뚝뚝~’

학교 밖 청소년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을 중단한 전주지역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취업 향해 나간다! 뚝뚝뚝뚝~’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의 학

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의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